



김제사랑장학재단, 꿈키움 진로 멘토링 운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16~17일 여름방학을 맞아 지평선학당 출신 대학생들과 학당 수강생들이 소통하는 꿈키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평선학당 출신의 대학생 4명이 멘토가 되어 지평선학당 수강생인 중·고등학생 140여 명에게 자신의 수험생활과 대학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과 교과별 학습 방법, 학교생활 노하우 등 멘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2일간 멘토로 참여한 한 학생은 "제가 학당 다닐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진로 선택이나 교과별 학습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아 참여했다"며 "멘토로 참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편 꿈키움 진로 멘토링은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지평선학당 수강생들의 학업 의욕을 북돋아 학업 역량 향상과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방학 기간마다 멘토·멘티 간 만남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향교동, 온열질환 예방 안전교육

남원시 향교동은 지난 16일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건강교실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간호직 공무원이 실시하였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안전수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낮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체온을 내리고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단, 의식이 없는 경우엔 즉시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황의중 향교동장은 "응급상황시의 대처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길 바라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엔지니어링협회, 김제시에 구호성금 500만원 기탁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혜경) 전북지회가 17일 지역내 재해취약계층에게 써 달라며 500만 원의 재해구호성금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전북지회 장성태 회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재해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김제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주 김제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재해취약계층 주민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 주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18일부터 3일에 걸쳐 음주운전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음주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음주운전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 및 강력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관내 불빛 축제, 천변 야외 수영장 등 관내 행사장 부근과 주요 교차로 및 유흥가 식당가 등 통행량과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하여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움직이며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관내 음주운전 단속자 현황을 보면 주말에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말은 물론 평일 주간 시간과 아침 출근시간 숙취운전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아·청소년에 좋은 생활습관 정립

전북대병원,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 실시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가 소아청소년의 암 예방을 위해 도내 학교 현장의 교사를 대상으로 암 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지역암센터(소장 정영범 비뇨의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생활습관이 시작되는 소아·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교사를 훈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전북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아·청소년의 암 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소아·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정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일씩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각각 암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펼쳤다.

교육과정은 △국립 암예방 수칙에 대한 이해 △소아청소년 소화기질환에 대한 이해 △소아암의 이해 및 소아암환자 학교복귀 지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여성암의 이해 △소아비만과 당뇨의 이해



와 예방 △삼할별 소아청소년 응급처치의 이해 △소아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 △소아청소년 흡연의 위험성 및 지도법 △소아암환자의 재활에 대한 이해 △운동재활요법 실습 △원인요법 △암 예방을 위한 바른 식습관 형성 △소아청소년의 우울증과 상담기법 △미술심리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로 구성됐다. 정영범 전북지역암센터소장은 "암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학교의 현장 교육자를 대상으로 암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좋은 생활습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예수병원-국제로타리 3670지구 봉동로타리클럽, 협약 체결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국제로타리3670지구 봉동로타리클럽(회장 한진희)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사회 봉사를 전개하고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 제5지역 인도주의봉사 프로젝트를 이행하기에 앞서 협약식을 가졌다.

강종대 예수병원 사회사업과 팀장은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 글로벌보조금사업인 자해·자살 청소년 마음챙김 프로젝트는 이제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 마음속에 큰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나눔과 선행을 보이고 예수병원을 향한 새로운 프로젝트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담했다.

이날 봉동로타리클럽을 포함한 국제로타리 3670지구 6개 클럽은 인도주의봉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예수병원 측에



협력 10대를 기증했다. 전주봉동로타리클럽은 지난 12월부터 예수병원과 원주군청과 협력해 위기 청소년들의 자해·자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의료비용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주민예산학교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 편성

익산시는 17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민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을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의 우수 사례 소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개분과 53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이번 주민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하면서 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관심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예산편성으로 익산시 재정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시원한 여름 특강' 진행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합갑수)은 최근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시원한 여름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 특강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복지관 강당에서 신나는 예술여행(국악공연 1회, 마당극 공연 1회)과 소비자 피해예방 인형극, 외골와를 환경학교 등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이모(75)씨는 "이번 여름은 유독 덥고 지쳐서 움직이기도 싫어하는데, 여러 가지 공연도 보며주고 교육도 해주셔서 더위가 절로 날아가는 것 같고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한갑수 관장은 "이번 여름 특강은 그간 열심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여유를 가지고 신나게 놀며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고창 공음면 지사협, 지역 청소년들과 영화관람

고창군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경례 민간위원장, 최순필 공공위원장)가 16일 공음면 초·중·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물같은 하루 보내기' 사업을 진행했다.

'선물같은 하루 보내기'는 무료한 방학을 보내는 공음면 학생들에게 자주 접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점심은 중화요리, 영화는 감동과 교훈이 있는 '벨리멘탈'을 관람했다. 김경례 민간위원장은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고, 정말 선물같은 하루를 보낸 것 같다"며 "청소년 뿐만 모든 계층의 복지에 앞장서는 공음면 지사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필 공공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선물해준 공음면 지사협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교대-전북문화관광재단 협약

전주교육대학교는 17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예술인들의 안정된 창작환경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 등 문화예술을 통한 대학-지역 상생을 위해 기획됐다.

이에 양 기관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및 문화예술 기회 제공 △미술전시 장소 제공 및 미술시장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상생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병준 총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상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여건과 가능성을 타진해 문화적 풍요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주기전대, 오수고 학생 대상 특강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7일 오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및 청년고용정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특성학교 학생들이 자기 이해에 기반한 효율적인 진로설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지역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내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약계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센터장은 "특성화 고교생의 합리적인 진로설정 지원 및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안내하고자 특강을 진행했다"며 "대학·고교간 상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한국나눔연맹, 김제시에 후원물품 기탁

(사)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17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1,000포)와 라면(40개입, 1000box) 등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허영창 (사)한국나눔연맹 복지팀장은 "혹서기 물가 상승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미와 라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사)한국나눔연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두가 힘겨워하는 무더위에 정성이 담긴 큰 선물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될 거 같다"며 "소중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 개관된 단체로 정부의 지원 없이 독거노인·결핵아동 무료 급식사업,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세계 지구촌 빈민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생필품 전달과 교육지원 깨끗한 식수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